

## 우리나라 중소기업법인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관한 연구<sup>†</sup>

정길채\*

### 〈요 약〉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역별, 업종별 특성을 분석하고, 특성화된 중소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소기업 실태, 산업별 중소기업 실태 자료 등을 기초로 업종, 규모 등 다양하게 분포된 중소기업을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감안하여 기업특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존립기반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규모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경쟁력 격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대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기타서비스업, 광업 및 숙박음식업 등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대기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의 노동력 편중현상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서울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대기업 종사자보다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소기업 내에서 지역별 종사자 구성을 살펴보면, 전국 중소기업 종사자의 50% 이상이 서울·경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집중 현상은 지방경제발전을 통한 우리나라 전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체의 지방 분산이 가능할 수 있는 실천적인 활동 수행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핵심주제어 : 중소기업 특성분석, 종합적 접근법, 업종별 특성, 지역적 특성

논문접수일: 2009년 11월 11일    수정일: 2009년 12월 23일    게재확정일: 2009년 1월 29일

\* 송의여자대학 경영과 조교수, gilbutt@sewc.ac.kr

† 본 논문은 송의여자대학 2009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I. 서 론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성과 및 질적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차이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부분은 경영자원 및 핵심역량의 부족으로 지속적인 경영성과 창출과 사업구조 고도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산업의 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어 중소기업 육성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들은 자국의 경제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성과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국외적으로는 세계 경기 침체와 국내적으로는 구조개혁에 수반된 기업들 사이의 경쟁 심화, 2008년 하반기에 수면위로 부상하기 시작한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태에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역별, 업종별 특성을 분석하고, 특성화된 중소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소기업 실태, 산업별 중소기업 실태 자료 등을 기초로 업종, 규모 등 다양하게 분포된 중소기업을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감안하여 기업특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존립기반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선행연구

지금까지 시도된 중소기업 특성에 관한 연구는 기업현황에 대한 연구(林家彬, 林薰, 2001)나 특정 경영활동(예: 전략경영, 디자인혁신, 수출활동, 연구개발활동, 지식경영활동, 경영자 내적 특성 등)이 경영활동(이론적 모형, 노춘섭, 1989; 연구개발투자의 적정성, 이가중 외, 1991; 사업성공, 여은아; 개인 및 조직업무 효

과성, 송상호, 2005; 국제경쟁력, 이수봉, 2006; 재무비율, 조택희, 2008)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송상호(200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경영 결정요인들과 지식경영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정보기술수준, 지식관리프로세스, 문화요인, 전략 및 리더십요인 등이 지식경영성과(개인 업무효과성, 조직 업무효과성, 조직간 업무효과성)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식경영성과를 개인, 조직, 조직 간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이들 각각의 단위별로 지식경영 결정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본 결과, 개인 업무효과성, 조직 업무효과성, 조직간 업무효과성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p. 18).

이수봉(2006)의 연구에서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디자인 혁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기업경쟁력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결과, 제품품질 향상, 수익성 제고, 차별화 유발, 인지도 향상, 가격경쟁력 향상, 매출증대, 수출향상 등의 성과 창출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과는 관련 지식과 기술 축적, 개발제품 경쟁력 강화, 기업 이미지 향상 등을 통해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유발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택희(2008)의 연구에서는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자산규모나 유동비율, 광고집약도, 연구개발집약도 및 종업수 등에 있어 우수한 성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특정 산업이나 지역, 지식경영이나 연구개발 등과 같은 특정 경영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당해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중소기업의 지역별 특성 분야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가운데 법인화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업종과 지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능력, 수출 능력, 연구개발 능력 등을 비교 평가하고,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중소기업 존립기반 제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1)</sup>

1) 이와 같은 형태의 중소기업 특성 분석은 中小企業總合研究機構(2007)에서 시도된 특성 분석 접근방법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 Ⅲ. 중소기업 특성 분석

#### 1. 표본 기업 선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신용평가정보(KIS) 업체개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체수(1,193,357개 기업) 가운데 법인기업(339,456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최종 표본기업(52,903개 기업)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1> 표본기업

구분		
총 기업체수	1,193,357	연구대상 기업
비법인 기업 제외	(853,901)	339,456
흡수 합병이나 폐업 및 청산기업 제외	(143,235)	196,221
재무자료(자산, 부채 및 매출액) 사용 불능 기업 제외	(122,754)	73,467
종업원 수 자료 사용 불능 기업 제외	(20,457)	53,010
연구개발 등 기타 자료 사용 불능 기업 제외	(107)	52,903

#### 2. 중소기업 재무특성 분석

2006년 말 현재 본 연구의 표본기업에 포함된 우리나라 대기업(1,872개 사업체)의 기초 재무적 특징은 9천 2백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1기업 당 매출액: 약 503백만원), 총 사업체의 48% 정도가 수출활동을 수행하는 업체로 총 매출액의 11% 정도를 수출을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체 대기업 사업체의 18% 정도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의 1.7% 정도를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51,076개 사업체에서 총 5천 1백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1기업 당 약 10백만원), 총 사업체의 22% 정도가 수출활동을 수행하는 업체로 총 매출액의 6% 정도를 수출을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체 중소기업 사업체의 15.6% 정도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의 1.4% 정도를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기업규모별 기초 재무자료 요약

	기업 체수	매출액	수출 기업수 (%)	수출액 (%)	연구소 보유 기업수(%)	여성 기업수 (%)	연구개발 기업수(%)	연구개발비 (%)
대기업	1,827	920,642,796,158	877 (48.00)	101,014,598,050 (11.00)	337 (18.40)	15 (0.80)	918 (50.2)	15,982,751,175 (1.70)
중소 기업	51,076	522,350,559,136	11,358 (22.20)	32,965,134,388 (6.30)	7,948 (15.60)	1,258 (2.50)	5,171 (10.1)	3,874,322,380 (0.70)
전체 기업	52,903	1,442,993,355,294	12,235 (23.10)	133,979,732,438 (9.30)	8,285 (15.70)	1,273 (2.40)	6,089 (11.5)	19,857,073,555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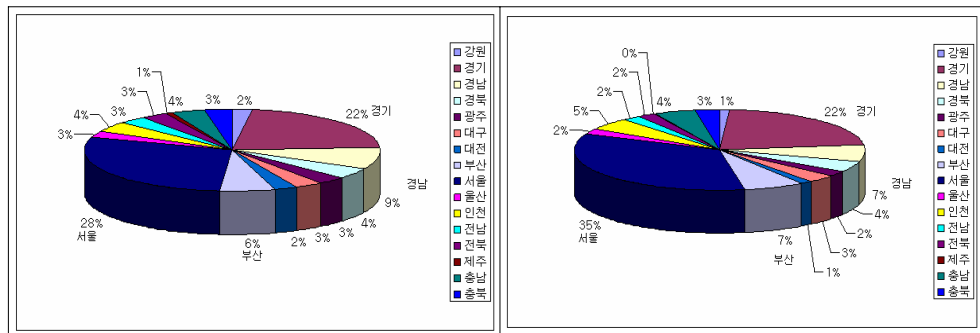
<표 3>에 따르면, 기업체수에 대한 지역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 매출액의 51% 정도가 서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경기지역(19%)과 경남지역(5%)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서울·경기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표 3> 전체 기업의 지역별 기초 재무자료

지역	기업 체수	매출액	수출 기업수	수출액	연구소 보유기업수	여성 기업수	연구개발 기업수	연구개발비
강원	1,106	8,416,909,192	73 (6.60)	271,257,480 (3.20)	93 (8.40)	30 (2.70)	64 (5.80)	58,733,316 (0.70)
경기	11,426	270,729,570,173	3,642 (31.90)	26,305,070,654 (9.70)	2,624 (23.00)	256 (2.20)	1,709 (15.00)	9,229,436,249 (3.40)
경남	4,512	69,710,113,621	912 (20.20)	10,994,385,737 (15.80)	484 (10.70)	117 (2.60)	390 (8.60)	609,652,119 (0.90)
경북	2,224	63,760,908,723	477 (21.40)	4,874,314,693 (7.60)	284 (12.80)	57 (2.60)	251 (11.30)	640,046,542 (1.00)
광주	1,542	17,595,518,903	142 (9.20)	3,059,412,855 (17.40)	112 (7.30)	35 (2.30)	86 (5.60)	99,065,671 (0.60)
대구	1,569	21,313,544,825	307 (19.60)	1,520,016,553 (7.10)	238 (15.20)	40 (2.50)	163 (10.40)	157,359,606 (0.70)
대전	1,295	14,077,381,259	205 (15.80)	970,956,790 (6.90)	315 (24.30)	34 (2.60)	114 (8.80)	242,771,568 (1.70)
부산	3,253	49,185,159,130	767 (23.60)	3,483,558,819 (7.10)	317 (9.70)	67 (2.10)	260 (8.00)	393,876,049 (0.80)
서울	15,431	721,698,275,692	3,723 (24.10)	52,033,521,210 (7.20)	2,424 (15.70)	350 (2.30)	1,858 (12.00)	6,812,399,707 (0.90)
울산	1,360	41,316,562,117	182 (13.40)	10,600,343,982 (25.70)	95 (7.00)	32 (2.40)	83 (6.10)	187,771,864 (0.50)

인천	2,158	56,596,870,120	737 (34.20)	10,379,925,195 (18.30)	446 (20.70)	42 (1.90)	362 (16.80)	717,714,175 (1.30)
전남	1,685	20,835,895,533	120 (7.10)	2,573,353,710 (12.40)	91 (5.40)	55 (3.30)	79 (4.70)	63,338,430 (0.30)
전북	1,349	14,185,454,778	133 (9.90)	690,762,599 (4.90)	129 (9.60)	52 (3.90)	96 (7.10)	64,834,392 (0.50)
제주	424	2,136,612,200	18 (4.20)	36,433,579 (1.70)	8 (1.90)	24 (5.70)	15 (3.50)	10,209,017 (0.50)
충남	2,035	51,225,415,342	474 (23.30)	4,729,174,421 (9.20)	370 (18.20)	48 (2.40)	335 (16.50)	343,780,032 (0.70)
충북	1,534	20,209,163,686	323 (21.10)	1,457,244,161 (7.20)	255 (16.60)	34 (2.20)	224 (14.60)	226,084,818 (1.10)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역별 기업체수와 매출액 구성비율을 분석한 결과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에 따르면, 서울지역에는 표본 중소기업 체 가운데 28%가 소재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 전체 매출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 경남, 부산 등이 기업체수와 매출액 규모에 있어 거의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기초로 각 지역별 중소기업 1기업 당 매출액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1기업 당 매출액은 지역별 기업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설명하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지역별 중소기업체수와 매출액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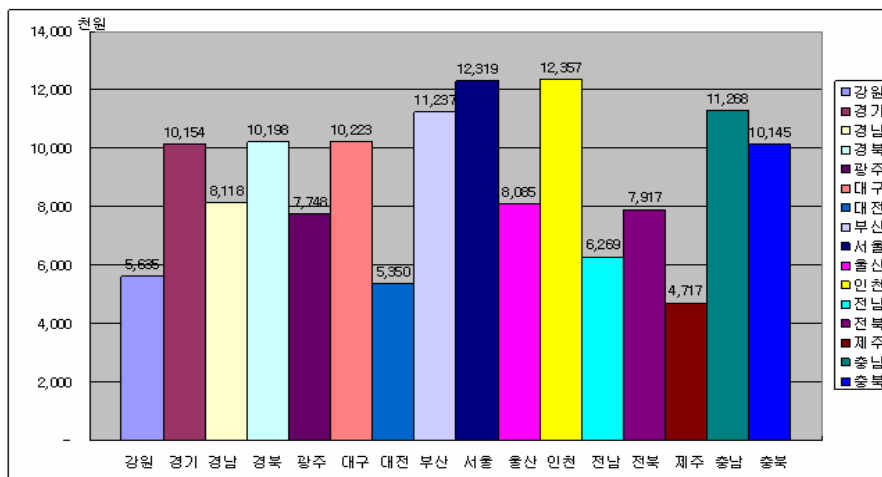
표본간 차이를 검정하는 t-검정 결과, 1기업 당 매출액 성과가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99%)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역별 1기업 당 수익창출능력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지역별 수출창출 능력 비교

	t-값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기업 당 매출액	14.270	15	.000	8858.75	7535.57	1018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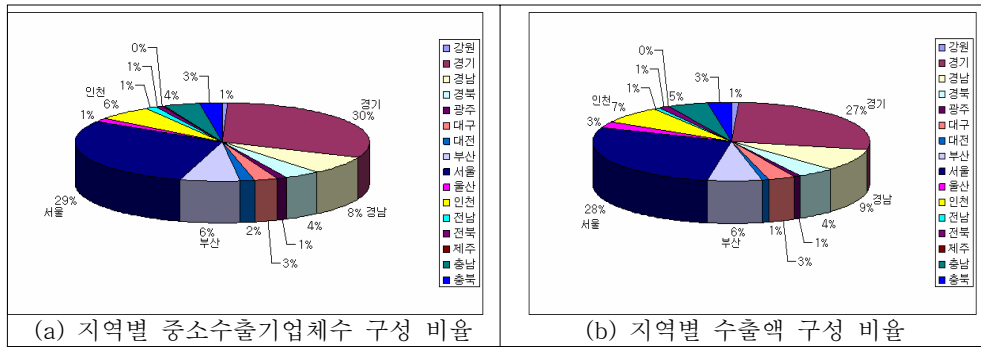
<그림 2>에 따르면,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1기업당 매출액(12,357천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인천지역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이 다른 지역 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제주지역의 경우 1기업당 4백7십만원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인 수익 창출능력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한 점은 경기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체수와 매출액 규모는 서울지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기업 당 매출액 규모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 가운데 7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수익창출능력이 표면적인 규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성 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비해 충남지역의 경우에는 기업체수와 매출액 규모가 전국 기업체수와 매출액 규모의 4%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1기업 당 매출액으로 측정된 수익창출 능력에서는 서울·인천지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나아가 각 지역별\_산업별 1기업당 수익창출능력에 대한 지표를 측정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역별\_산업별 1기업당 매출액 지표를 통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업종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 2> 지역별 중소기업 1기업 당 매출액

<그림 3>에 따르면, 서울지역에는 중소수출업체 가운데 29%가 소재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 경남, 인천, 부산 등이 수출업체수와 수출액 규모에 있어 거의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3> 지역별 중소수출기업체수와 수출액 구성 비율

이와 같은 자료를 기초로 각 지역별 중소기업 1기업 당 수출액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1기업 당 수출액은 지역별 기업의 상대적인 수출경쟁력을 설명하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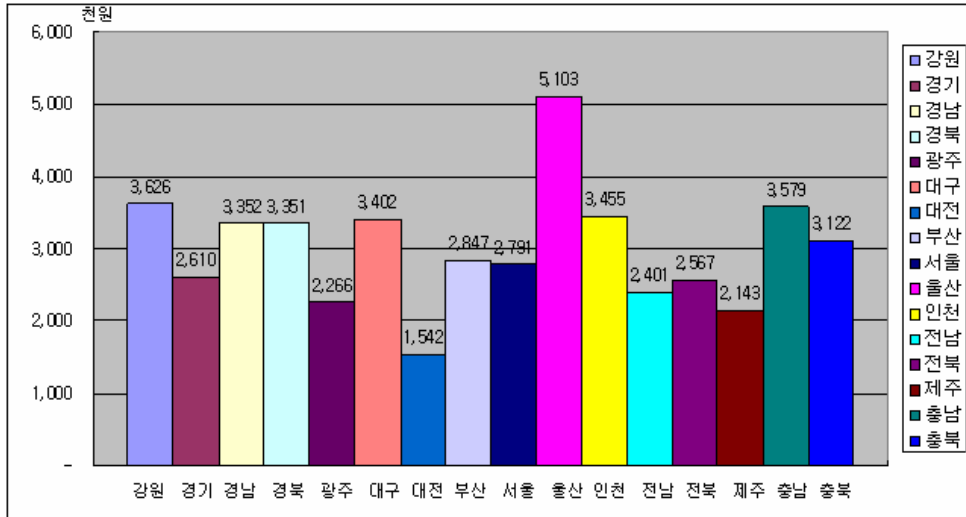
표본 집단 사이의 차이를 검정하는 t-검정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역별 1기업 당 수출액 성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99%)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역별 1기업 당 수출 능력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별 표준적이고 특화된 산업분야를 파악하여 차별화된 지역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지역별 중소기업 당 수출성과 비교

	t-값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기업 당 수출액	14.787	15	.000	3009.81	2575.97	3443.66

<그림 4>에 따르면,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1기업 당 수출액(5,103천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수출관련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울산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다른 지역 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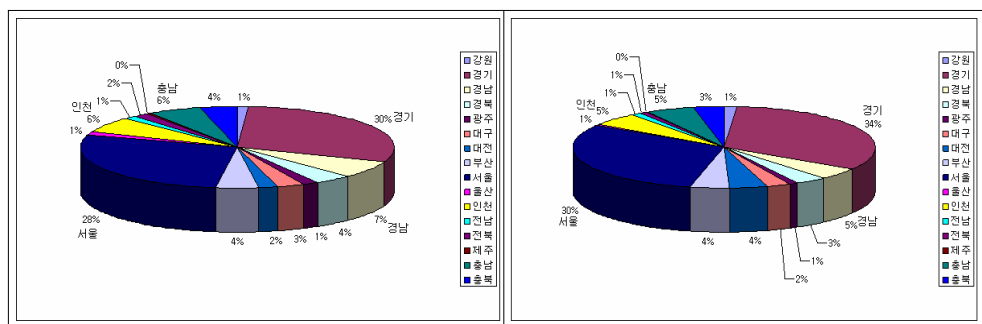
<그림 4> 지역별 중소기업 1기업 당 수출액

내륙지방인 대전지역의 경우 1기업당 1백5십만원 정도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수출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한 점은 경기지역의 경우 중소수출업체수와 수출액 규모는 서울지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기업당 수출액 규모는 전국 16개 시도지역 가운데 9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수출 능력이 표면적인 규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역량 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비해 충남·북지역과 강원지역의 경우에는 수출업체수와 수출액 규모가 전국 수출업체수와 수출액 규모의 5% 미만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1기업당 수출액으로 측정된 수출 능력에서는 울산지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기업당 매출액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나아가 각 지역별\_산업별 1기업당 수출 능력에 대한 지표를 측정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역별\_산업별 1기업당 수출액 지표를 통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업종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역별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체수와 연구개발비 구성비율을 분석한 결과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표본기업인 우리나라 중소기업법인 51,076개 기업 가운데 5,171개 기업(10.1%)이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림 5>에 따르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표본 중소기업법인 5,171개 기업 가운데 30%가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인천, 대전, 경남 지역 등이 연구개발 기업체수와 연구개발비 규모에 있어 비슷한 수준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5> 지역별 연구개발 업체수와 연구개발비 구성 비율

이와 같은 자료를 기초로 각 지역별 중소기업 1기업 당 연구개발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1기업 당 연구개발비는 지역별 기업의 상대적인 연구·개발 경쟁력을 설명하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표본간 차이를 검정하는 t-검정 결과, 1기업 당 연구개발비 지출이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99%)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역별 1기업 당 연구역량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지역별 중소기업 당 연구개발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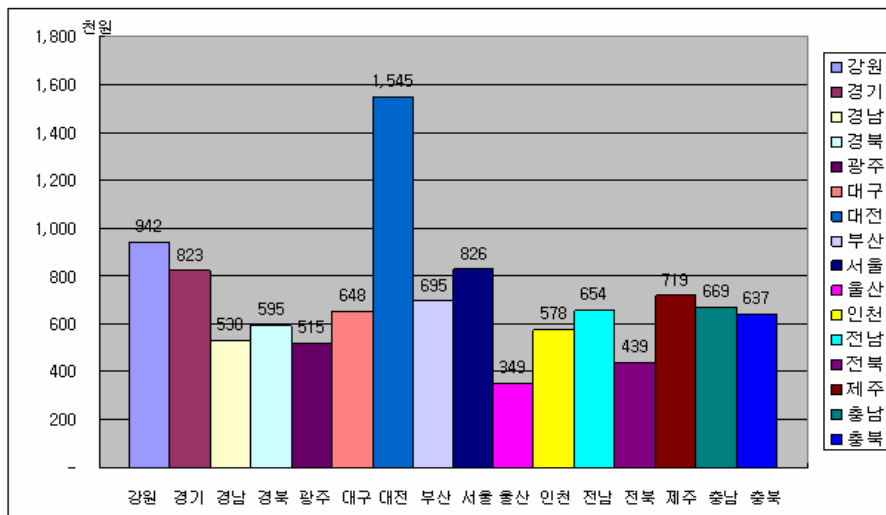
	t-값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기업당 연구개발비	10.335	15	.000	697.75	553.84	841.66

<그림 6>에 따르면, 대전지역 연구개발 중소기업수나 연구개발비가 전국 전체에 비해 2~4%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1기업 당 연구개발비(1,545천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전지역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능력이 다른 지역 기업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 지원활동은 신제품개발이나 신산업육성의 기초가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전지역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의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1기업당 수출액이 가장 높은 울산지역의 경우 1기업당 3십5만원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인 연구개발 능력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한 점은 인천지역의 경우 연구개발 중소기업체수와 연구개발비 규모는 대전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기업당 연구개발비 규모는 전국 16개 시도지역 가운데 12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천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표면적인 규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 역량 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비해 강원지역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기업체수와 연구비 지출 규모가 전국 연구개발 기업체수와 연구개발비 규모의 1%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1기업당 연구개발비로 측정된 연구 역량에서는 대전지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각 지역별\_산업별 1기업당 연구 역량 지표를 측정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역별\_산업별 1기업당 연구개발비 지표를 통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업종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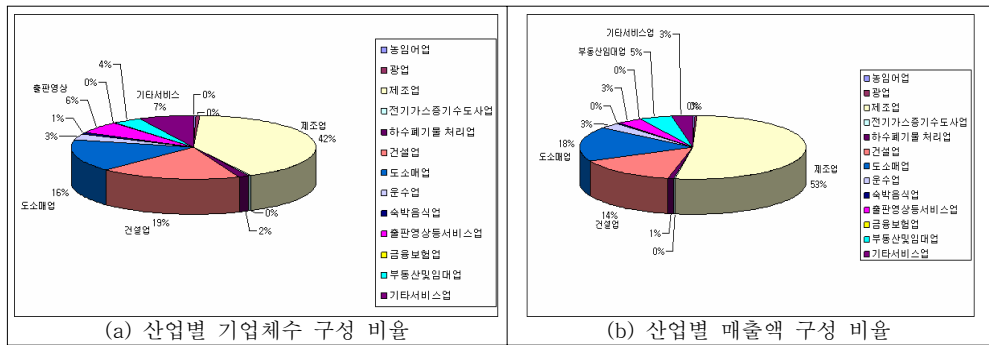
<그림 6> 지역별 중소기업 1기업 당 연구개발비

본 연구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51,076개 기업의 산업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7>의 (a)와 같다. 전체 중소기업의 42%에 해당하는 21,207개 사업체가 제조업에 속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건설업(19%)과 도소매업(16%), 기타서비스업(7%),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중소기업법인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 산업 영역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것이 <그림 7>의 (b)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제조업체의 기업체수 구성 비율(42%)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53%) 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제조업체의 수익창출 능력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건설업이나 기타서비스업은 반대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업종이 제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의 다양성과 조화를 모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말해 주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산업 포트폴리오 구성의 합리화와 세계 경제 변화 등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산업분야의 수익 창출 기회와 가능성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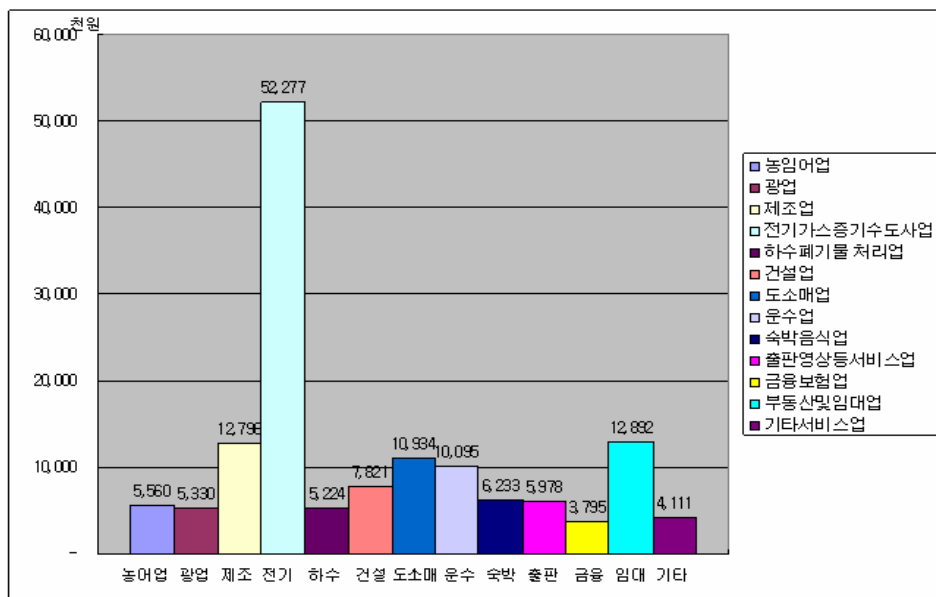
각 산업별 중소기업의 매출 경쟁력을 보다 분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에 속한 1기업 당 규모( $\frac{\text{산업별매출액}}{\text{기업체수}}$ )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7> 산업별 기업체수와 매출액 구성 비율

<그림 8>은 각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 1기업 당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8>에 따르면, 외형상 규모인 기업체수와 매출액이 가장 높았던 제조업체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1기업 당 매출액(12,892천원) 보다 낮은 수준인 12,796천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상대적 수익창출 능력이 매우 저조하고,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성과가 그리 높지 않음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에 비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의 경우에는 39개 기업이 2,038,784,576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산업분야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인 1기업 평균 5200만원 이상의 매출액을 실현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 금융보험업의 상대적 수익창출 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금융, 보험, 연금 관련 업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운 분야임을 시사하고 있다. 부동산업이나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이 중소기업 수익창출에 적합한 분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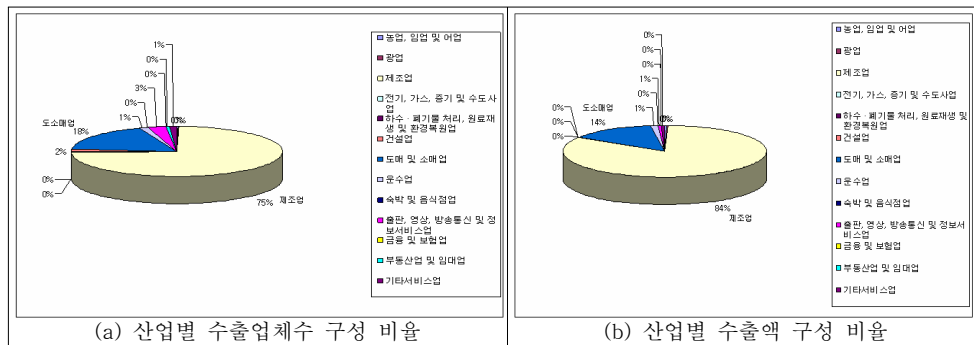
<그림 8> 산업별 중소기업 1기업 당 매출액

우리나라 중소기업법인 51,076개 기업의 산업별 수출기업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9>의 (a)와 같다.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75%에 해당하는 8,420개 사업체가 제조업에 속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도소매업(18%)과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중소기업법인 수출액을 기준으로 각 산업 영역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것이 <그림 9>의 (b)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제조업체의 수

출업체수(75%)가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2,022개 사업체가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의 14%에 해당하는 45억 정도의 수출액을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소기업 수출액의 대부분을 제조업 분야와 도소매업 분야에 속한 기업체들이 달성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지표이다. 농림어업분야와 운수업(특히, 수상운송업과 운송관련 서비스업) 및 출판, 영상,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분야에서 수출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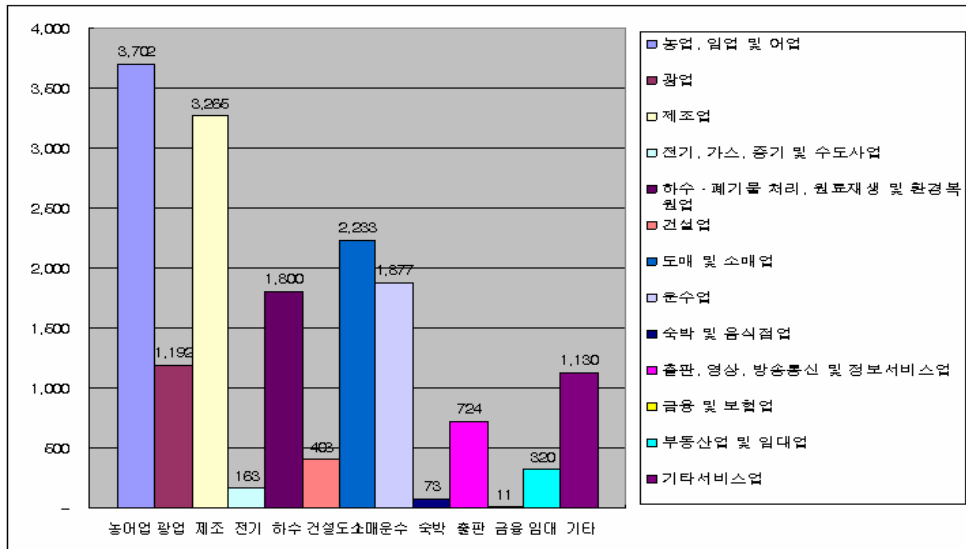
각 산업별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보다 분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에 속한 1기업당 규모( $\frac{\text{산업별수출액}}{\text{기업체수}}$ )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9> 산업별 수출업체수와 수출액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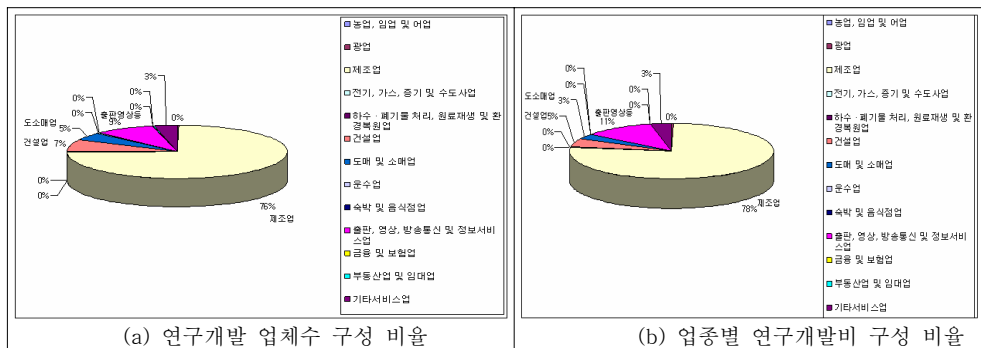
<그림 10>이 각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 1기업 당 수출액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10>에 따르면, 외형상 규모인 기업체수와 수출액이 가장 높았던 제조업체는 농·임·어업의 1기업 당 수출액(3,702천원) 보다 낮은 수준인 3,265천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매출액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상대적 수출력이 저조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농·임·어업의 경우에는 34개 기업이 125,867,146원의 수출액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산업분야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인 1기업 평균 3,702천원 이상의 수출액을 실현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소기업에 있어 금융보험업의 상대적 수출력이 가장 낮은 것은 중소기업으로서는 금융, 보험, 연금 관련 업종에서 대외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해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동산업이나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이 중소기업의 미래 추가적인 수출 동력을 확보

하기에 적합한 분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0> 산업별 중소기업 1기업 당 수출액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중소법인가업 5,171개 기업의 산업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1>의 (a)와 같다. 전체 중소법인가업의 76%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제조업에 속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9%), 건설업(7%)과 도소매업(5%), 기타서비스업(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중소기업법인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각 산업 영역의 연구개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것이 <그림 11>의 (b)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1> 산업별 연구개발 기업체수와 연구개발비 구성 비율

분석 결과, 중소기업 전체 연구개발비 가운데 제조업체의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제조업체는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신제품 연구와 개발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징적인 부분은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분야에서 연구개발 관련 투자나 지출이 다른 나머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 중분류 분석을 시도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출판분야나 통신분야, 컴퓨터프로그래밍 분야, 정보서비스분야 등에서 많은 수준의 연구개발 활동 수행업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야가 첨단 IT 기술개발이나 활용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연구개발 지출을 필요로 할 것이다.

<표 7>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분야 중분류 분석(단위: 개, 원)

중분류산업	사업 체수	매출액	수출기 업체수	수출액	연구개발 업체수	연구개발비
출판업	2,147	10,392,395,432	217	88,442,878	312	339,116,11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23	1,477,194,204	39	88,650,522	21	15,851,733
방송업	86	1,215,701,028	2	39,785	11	396,663
통신업	116	1,456,453,363	21	12,844,040	19	10,613,7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41	2,430,914,035	37	33,183,348	43	29,402,400
정보서비스업	227	1,199,758,946	10	12,715,094	47	33,835,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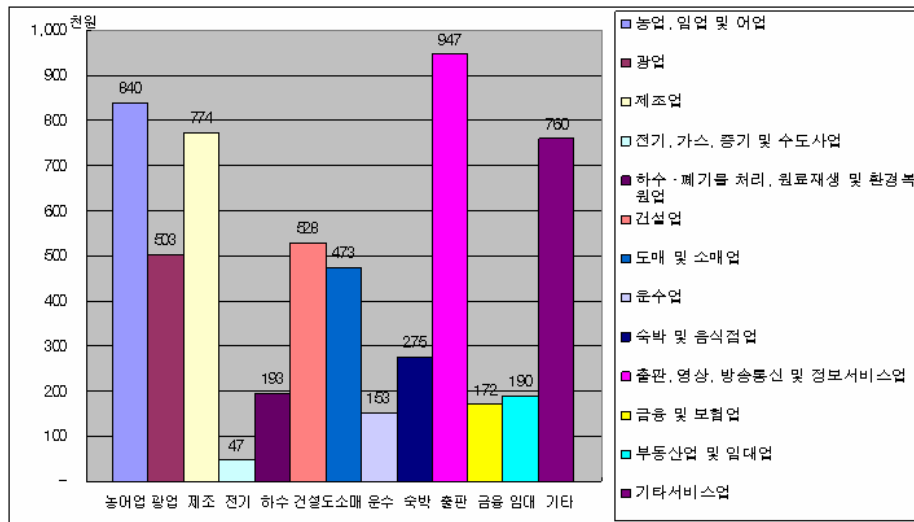
자료원 : 한국신용평가정보

각 산업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보다 분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에 속한 1기업 당 연구개발비( $\frac{\text{산업별연구개발비}}{\text{기업체수}}$ )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12>이 각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 1기업 당 연구개발비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에 따르면, 외형상 연구개발 활동 수행 기업체수와 매출액이 가장 높았던 제조업체는 출판업(947천원) 및 농·임·어업(840천원)의 1기업 당 연구개발비보다 낮은 수준인 774천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상대적 연구개발 투자 수준이 저조하고, 제조업 분야의 혁신적 발전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에 비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분야의 경우에는 453개 기업이 429,215,781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산업분야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인 1기업 평균 947천원이 넘는 연구개발 투자를 실현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농·어업분야에서도 점차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신상품개발 및 수익성 향상 등을 모색하는 활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부분이다.



<그림 12> 산업별 중소기업 1기업 당 연구개발비

#### IV. 중소기업의 기반에 관한 고찰

지금까지의 기업수와 종업원수에 대한 업종별 특성 분석을 근거로 하여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적 우위 확보를 위한 업종별 특성을 정리하고, 중소기업의 존립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찰한다.

## 1. 규모별 특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수를 각 규모별 기업체수로 나눈 1기업당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1기업당 평균 854명(1,560,395÷1,827)이 종사하고 있는데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기업당 평균 34.68명(1,771,438/51,076)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경쟁력 격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 2. 업종별 특성

업종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1기업당 종업원이 가장 높은 수치인 63명을 보이고 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종과 운수업의 1기업 당 종업원 규모가 각각 61명과 58명과 같이 중소기업 업종 가운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대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1,216명), 기타서비스업(823명), 광업(816명), 숙박음식업(739명)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기업 당 종사자수의 측면에서 볼 때도 대기업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수준인 151명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22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보험분야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의 1기업 당 종사자수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에서는 25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규모별 사업영역이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지역별 규모 특성

전체 표본기업 가운데 대기업의 종업원수와 중소기업 종업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6.8%와 53.2%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본 종업원수에 있어서는 각 지역산업특성에 따라 종사자수에 변화가 존재한다.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대기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에 소재를 두고 있는 기업체 전체 종사자수 대비 대기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수의 비율이 62.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종사자의 노동력보다는 대기업 종사자의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말

해 주는 것으로서, 서울지역에의 노동력 편중현상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서울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대기업 종사자보다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소기업 내에서 지역별 종사자 구성을 살펴보면, 전국 중소기업 종사자 총 1,771,438명 가운데 539,167명(30.4%)이 서울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총 중소기업 종사자의 22.1%에 달하는 사람들이 경기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체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집중 현상은 대기업체에 있어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57.4%에 달하는 대기업 종사자가 서울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경제발전을 통한 우리나라 전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체의 지방 분산이 가능할 수 있는 실천적인 활동 수행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 4. 지역별 산업 특성

지역별로 산업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의 경우에는 부산지역과 경남북지역, 전남북지역, 충남북지역 및 제주지역에서 5~10%의 법인형태의 사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등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지역(4.1%)과 영농환경이 좋지 않은 강원지역(5.6%)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농어업·임업 법인사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업지역인 울산(1%)과 인천(1%) 지역에 농어업 및 임업 법인사업체가 낮은 수준인 것은 정상적이거나, 평야지역이 많고 실질적인 영농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대구(0.0%), 대전(0.5%), 광주(0.5%)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 개인 농어민 등에 의한 생산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농어업 및 임업 전문경영인 양성과 조직적인 영농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의 경우에는 경상남북도지방과 전라남북도지역에서 10% 이상의 법인형태의 사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울산지역과 부산지역에 전기·가스·증기·수도관련 법인사업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은 특이할만한 사실이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전국 중소기업 1,548개 기업 가운데 33.4%의 기업체가 서울지역에 그 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내륙지방인 대구와 충북지역에 운수업과 관련한 중소기업체의 수가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이들 지역 전

체 중소기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과 영남권을 오가는 물류운송업체의 경유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물류창고서비스와 같은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나 음식숙박업이 유망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출판영상방송통신사업이 미래 정보화 사회를 보다 혁신적으로 주도할 분야임을 감안해 볼 때 서울과 대전 지방에 편중된 형태로 사업체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각 지역경제의 출판영상방송통신사업을 주도할 중심 기업설립과 운영환경을 형성할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각 지역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속한 법인사업체의 구성비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 부산지역이 지역내 전체 기업체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매매나 임대관련 서비스사업은 거주자가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 즉, 서울, 경기, 부산 등지에서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이 우리나라가 부동산 및 임대사업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기타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서울, 부산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서비스업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V. 연구결과 요약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기업수와 종사자수를 중심으로 규모별,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모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경쟁력 격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대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기타서비스업, 광업 및 숙박음식업 등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지역별로 살펴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대기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의 노동력 편중현상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서울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대기업 종사자보다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소기업 내에

서 지역별 종사자 구성을 살펴보면, 전국 중소기업 종사자의 50% 이상이 서울·경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집중 현상은 지방경제발전을 통한 우리나라 전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체의 지방 분산이 가능할 수 있는 실천적인 활동 수행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넷째, 업종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상남북도지방과 전라남북도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을 영위하는데 유리하고, 운수업은 서울지역에서 그 경쟁력을 찾을 수 있다. 출판영상방송통신사업은 서울과 대전 지방에 편중된 형태로 사업체가 나타나고 있으나, 각 지역경제의 출판영상방송통신사업을 주도할 중심 기업설립과 운영환경을 형성할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 즉, 서울, 경기, 부산 등지에서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이 우리나라 부동산 및 임대사업의 중심이 된다. 기타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서울, 부산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서비스업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참고문헌

1. 김승호·강형구(2005),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조직특성, 최고경영자리더십 및 네트워크 활동과 성과,” 한국인사·조직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pp.371-402.
2. 노춘섭(1989),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적경영의 이론적 모델,” 중소기업연구, 제11권, 제1호, pp.203-244.
3. 송상호(2005) 중소기업에서 지식경영 결정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지식경영연구, 제6권 제2호, pp. 47-66.
4. 신상철(2006), 중소기업 경영성과 분석기반 확대·개선 방안, 기본연구06-08, 중소기업연구원.
5. 신용보증기금(2008), 중소기업창업·성장단계 판별모형 및 창업특성에 관한 연구, KODIT REPORT 2008-5호.
6. 여은아(2002), “중소기업 경영자의 내적 특질이 사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4권, 제1호, pp. 53-74.
7. 이가중·김중범·김인걸(1991), “중소기업의 적정연구개발투자에 관한 연구-한국과 일본의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제25권, 제2호, pp. 589-604.
8. 이수봉(2006), “디자인혁신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디자인학연구, Vol. 19, No. 4, pp.163-174.
9. 이재식(2005), “품질경영 발전단계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분석,” 생산성논집, 제19권, 제1호, pp.75-93.
10. 정초시(2005), “충북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경영성과 분석”, 한국동서경제연구, 제17집, 제1권, pp.137-160.
11. 중소기업중앙회, [http://stat.kbiz.or.kr/stat\\_new/stat\\_01\\_01\\_2008.asp](http://stat.kbiz.or.kr/stat_new/stat_01_01_2008.asp)
12. 林家彬, 林薰(2001), “中國の中小企業の現況について,” 開發金融研究所報, 第7號, pp.51-83.
13. 中小企業總合研究機構(2007), わが國中小企業のインド展開の可能性に關する調査研究, 中小企業總合研究機構.

## Abstract

### Comparative Characteristics of Small and Medium-sized Firms in Korea

Jeung, Gil-Chea\*

Over the past 20 years new and small firms have been identified as significant components of economic strategies for job and wealth creation. Implicit in these strategies has been the search for policies which will increase the supply of new firms, and will encourage established firms' growth. Yet the majority firms spend the whole of their economic life within the small firm sector.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of the compa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small firm by providing evidence as to the factors which describe firms of different sizes, regions and industries. And I discuss in the context of policy options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The results from the analyse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size of the small firms in the sample measured in terms of both number of employees and sales revenue are characterized by regions, export performance and R&D. There is also some indication that growing firms may develop more complex environment.

These results are based upon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the strategic profile of a sample of small firms using KIS. From this observation of the firms during the data collection period, this is a conclusion that I find intuitively appealing.

Key Words : Small and Medium-sized Firms, Multi-dimensional Approach, Comparative Characteristics, Regional Circumstances

---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ng-Eui Women's College